

태양광, 한국 · 미국기업 “직격탄”

중국 공세로 2/4분기 매출액 반토막 ...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전환

세계경제 위기와 맞물려 세계 최대의 태양광 시장인 유럽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 미국, 유럽의 태양광 관련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솔라엔에너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산업 관련기업들은 2/4분기 영업실적이 1/4분기에 비해 거의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생산규모가 비교적 큰 현대중공업은 2/4분기 매출액이 7500만달러로 1/4분기 1억3700만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신성솔라에너지도 1/4분기 7500만달러에서 2/4분기 4300만달러로 급감했다.

영업이익률 또한 신성솔라에너지 -7.2%, STX솔라 -11.2%, 에스에너지 -5.1% 등으로 국내 태양광 셀·모듈 생산기업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기업인 퍼스트솔라(First Solar) 역시 2/4분기 영업이익률이 12.1%로 1/4분기 22.8%의 절반 수준이었고, 독일기업 큐셀은 4억5000만달러의 분기 적자를 기록해 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

반면, 중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생산기업 잉리는 매출액이 1/4분기 5억3000만달러에서 2/4분기 6억8000만달러로 증가했고, 트리나 역시 1/4분기 5억5000만달러에서 2/4분기 5억6000만달러로 소폭 증가했다.

2011년 들어 유럽 각국의 태양광 보조금 지원 축소로 수요가 위축되고, 중국기업들의 공격적인 생산능력 확장으로 공급과잉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기업들의 가격경쟁으로 2011년 태양광 모듈 가격이 35-40% 하락해 규모화와 수직계열화를 이루지 못한 한국, 미국, 독일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미국에서는 에버그린솔라, 스펙트라솔라 등이 파산하는 등 규모화하지 못한 많은 태양광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수순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14>